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Time Use of Married Female Clerical Workers and Their Husbands

대구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부교수 조 희 금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 Taegu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Cho, Hee-Keum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ime use of married female clerical workers and their husbands. Data for 143 couples were gathered from using structured questioinaire and time dairy. The analysis of time use data was carried out two approaches. They are the amount of time spent and the distribution of time for dailly activities. And also the couples' perceptions how restricted their long time labor to their family life was analyzed.

The results were shown as follows:

(1) Married female clerical workers and their husbands have long labor time and their physiological and leisure time is too short. This means the patterns of their time use are very unbalanced type.

(2) Wives worked longer than husbands on total labor with a large sexual difference in household works.

(3) Couples perceived that wives' work more negative affection on their family life than husbands' work.

* 이 논문은 1995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Ⅰ. 문제제기

30년간(1963-1993) 우리나라 고용사정의 변화를 분석한 자료(통계청, 1994)에 의하면, 여성취업자 가운데 가장 큰 증가를 보인 직종은 1963년 3만명에서 1993년 118.8만명으로 39.6배 증가한 사무직이다. 이는 전체 여성취업자가 지난 30년간 2.9배 증가한 것에 비하여 두드러진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또 사무직내 여성비율이 11.3%에서 41.1%로 29.8% 증가하여 전체 직종 가운데 여성비율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직종이다. 즉 사무직은 지난 30년간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가장 증가폭이 큰 여성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요 선진국에서 사무직의 여성비율이 60-80%정도를 차지하는 여성직종이라는 점과 우리나라에서 산업의 서비스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을 보거나, 여성인력의 고학력화, 3D업종 기피현상, 가계의 경제적인 요구증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을 볼 때, 앞으로 사무직에 대한 여성의 선호는 더욱 늘어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사무직여성의 연령이나 혼인상태별 분포를 보면, 다른 직종에 비해 기혼의 비율이 적으며 20-24세 연령층에 절반이상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이는 사무직여성을 흔히 '사무실의 꽃'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미혼여성들이 입직하여 대부분 결혼과 더불어 퇴직하는 것으로 대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무직여성 가운데 기혼여성의 비율이 1980년 10.1%에서 1994년 24.8%로 증가하였으며(한국여성개발원, 1995), 이러한 증가현상은 1988년부터 실시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영향으로 결혼퇴직제가 폐지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고용제도의 변화와 함께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의식변화, 그리고 기혼여성의 직장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정 및 사회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사무직에서 기혼여성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 있어서 혼인상태는 경제활동참가 여부와 특징을 설명하는 주요변수이다. 이는 가정이나 사회 전반적인 의식이 성별역할을 구분하여 결혼한 여성은 일차적으로 가정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이로인해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취업한 기혼여성에게 이중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역할갈등과 노동부담은 그들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이연숙 외, 1990; 이기영 외, 1992; 전영자, 1992; 조희금, 1996).

취업한 기혼여성이 그들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들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조사하므로써 살펴볼 수 있다. Szalai (1966)는 여성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에 대한 가사노동의 구속은 변화하기는 했지만 없어진 것은 아니며, 생활시간은 이러한 여성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조사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하루 24시간의 생활내용을 살펴 보는 생활시간 조사를 통해 취업한 기혼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부담하는 노동부담의 정도를 알 수 있다(조희금, 1996). 또 부인과 남편의 생활시간을 동시에 조사하게 되면, 부부의 시간적인 차이와 직장일, 가사노동, 여가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확대되는 기혼여성의 취업에서 문제가 되는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그들 개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여성직종으로 변화했으며, 또 점점 기혼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앞으로도 더욱 높아지리라고 보여지는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생활시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하루의 시간배분에서 부부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노동시간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무직 기혼여성이 겪고 있는 생활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전일제 맞벌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는 차이가

있는가?

1-1. 시간량적인 측면에서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는 차이가 있는가?

1-2. 시간대별 분포에서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는 차이가 있는가?

2. 부부의 노동시간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사무직 여성노동

1) 사무직 노동의 여성화

산업화초기의 사무직은 주로 교육을 받은 남자들이 수행했으며, 이들은 경영인이나 관리인으로 상승이동이 가능한 비교적 높은 지위의 직종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사무직 노동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화가 일어나서 일의 구상, 기획에 해당되는 정신노동 부분과 이를 문서로 만들고 정리하고 연락하고 계산, 보관하는 등의 육체노동에 가까운 하위사무직으로 나누어졌다(한국여성민우회, 1989). 이 과정에서 하위사무직을 여성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그후 사무자동화의 도입은 더욱 사무노동의 탈숙련화를 초래하여 사무원이 작업과정의 전체적 조망을 갖지 못한 채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즉 사무직노동의 여성화는 이러한 사무직의 지위하락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여성개발원, 1995).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4차 개정된 표준직업분류에서 여성의 사무직 참여증가 추세를 반영한 직업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즉, 대분류 4: 사무직원의 분류에서 중분류 42: 고객봉사 사무직원을 새로 분류하고, 기타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직종을 소분류 및 세분류로 채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통계청, 1992).

2) 사무직 여성노동실태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들(조옥라, 1982; 여성민우회, 1989; 이방윤, 1989; 심광숙, 1990; 유희정, 1991)에 따르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노동조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사무자동화에 따른 업무단순화 및 컴퓨터작업의 증가로 작업조건이 열악하여 VDT증후군이나 경견완증 등의 직업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산업전반의 서비스화는 사무직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이와 함께 크게 증가한 사무직 여성근로자의 지위는 숫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 등 고용구조 측면에서의 지위는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한국여성개발원, 1995). 또 여성노동력을 주변부적인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용정책과 남녀차별적인 역할구분으로 육아 및 가사노동을 전담해야하는 기혼여성의 부담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것은 사무직여성의 연령별 분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여성통계연보(한국여성개발원, 1995)에서 보면, 1980년도에는 전체 사무직여성의 82.4%가 24세 이하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1994년에는 24세 이하가 62.6%, 25-29세가 18.5%, 30세 이상이 18.9%로 25세 이상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25.2세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사무직여성은 결혼과 함께 또는 자녀출산과 함께 직장을 떠나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과 자녀출산으로 근속년수가 짧을 수 밖에 없는 사무직 여성들은 승진이나 배치에서 소외되고 직업교육이나 훈련 등의 기회로 부터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낮은 지위에 머무르게 된다. 이는 자녀양육과 가정생활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져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정 및 사회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결혼퇴직제가 폐지되더라도 자녀양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취업이 어렵게 된다.

한편 90년대 이후 결혼 및 자녀양육기에 있는 연령의 사무직 여성비율이 증가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결혼퇴직제 폐지, 여성정년폐지 등 여성노동운동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에 대한 육아휴직을 규정한 1995년의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및 앞으로 결혼퇴직제 폐지가 전산업의 사무직으로 확산되고, 보육시설이 확충되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리라고 보여진다.

2.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유무, 자녀유무, 가정생활주기의 어느단계에 있는가 등, 자신보다는 가족적인 요인에 의해 생활행동이 달라지며, 활동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시간적인 제약을 받게된다. 반면에 남성은 노동을 하고 있는 한 단순하고 비슷한 활동을 하며, 이것이 생활시간에 반영된다. 즉, 여성의 생활시간은 남녀의 성별역할분담에 의해 생활활동의 종류가 남성보다 다양하고, 이러한 다양성은 취업기혼여성의 경우 노동시간에도 영향을 주게된다. 이와같은 생활에서의 남녀 차이는 생활시간 구조의 분석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전일제 취업주부라도 수입노동시간은 남편에 비해서 짧다. 그러나 가사노동시간을 합하여 전체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남편과 같거나 오히려 부인의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1992년 서울시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평일 취업주부의 수입노동시간은 남편보다 3시간 가량 짧았다(이기영 외, 1994). 그러나 가사노동은 남편보다 3시간을 더하고 있어서 전체노동시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일요일의 전체 노동시간은 오히려 부인이 2시간 40분가량 더 길었다. 즉 취업여성의 노동시간을 남성의 노동시간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직장에 관계된 수입노동시간 뿐만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하루의 생활활동을 노동력의 소비와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때 가사노동은 가족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그 담당자가 노동력을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helton(1992)은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나타나는 소득에서의 남·녀차이는 결국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였으며, 여성은 이중노동의 수행을 위해 주말의 여가시간을 희생하며, 남성은 가족보다는 경제적인 자원에 시간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노동시간은 수입을 벌기위한 노동시간만을 의미하지만, 여성근로자 특히 취업한 기혼여성의 노동시간은 수입노동시간 외에 가족원 및 자신의 재생산노동을 위한 가사노동까지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인과 남편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가사 및 자녀양육시간은 성역할 관념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남편의 성역할 관념이 비전통적일수록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허경옥, 1994), 막내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부의 총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주희 외, 1995).

만일 수입노동시간이 노동능력을 의미하고 이것이 경제적인 자원으로 연결된다면, 취업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 전담은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을 낳게 된다. 그러나 노동능력이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시간 및 여가를 향유할 능력인 여가시간은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시간에 있어서 남녀간의 평등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伊藤, 1994). 생활시간에서 나타나는 남녀평등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생활시간의 '성에 의한 불평등지수'를 산출하기도 하는데(矢野, 1996), 생활시간에서 나타나는 남녀 차이의 전체적인 특징을 보기 위해 차의 절대치를 합계한 숫치로, 생활시간의 불평등지수 = $\sum$ | 남녀의 시간차 | 로 계산할 수 있다.

한편, ILO보고서에 따르면(통계청, 1995), 1993년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8.9시간으로 일본(37.7시간), 미국(41.4시간), 독일(40.9시간)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부부 대화시간이나 자녀와의 접촉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남편은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자신의 피로회복 및 수면을 위한 시간과 취미나 스포츠 등을 위한 여가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부인은 남편의 장시간노동이 남편과 관련된 건강이나 가족단란에 관련된 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森ます美, 1989; 이현아, 1994). 남편의 장시간노동은 가정생활에서 남녀간의 성별역할의 고정화를 초래하여 부부가 가정생활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평등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기혼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이 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 부부이므로, 기혼여성이 일정비율 이상 종사하는 직장을 연구자가 사전조사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사무직에 기혼여성이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은 대표적으로 이미 1970년대 부터 결혼퇴직제가 폐지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우체국, 동사무소, 구청 등의 하위직 공무원, 대학, 병원, 통신공사 등의 공공기관 등이다.

본 조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질문지는 부인용과 남편용으로 나누어, 부인용은 사무직 기혼여성의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평소 시간사용에 관한 내용, 그리고 평일과 휴일의 시간사용일지로 구성되었으며, 남편용은 남편의 시간사용에 관한 내용과 평일과 휴일의 시간사용일지로 구성되었다. 시간사용일지는 생활행동의 분류를 보기로 제시해 주는 사전코딩(precoding) 방식을 채택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대구시에서 기혼여성이 일정비율 이상 종사하는 것으로 선정된 직장을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질문지를 주면서 기재요령을 숙지시킨 후 며칠 후에 가서 회수하였으며, 부실한 경우 다시한번 부탁하여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남편과 부인이 각각 기입토록 하였으나, 남편의 시간사용일지는 부득이한 경우 부인이 남편에게 질문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원은 사회조사방법론을 수강한 대학생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1996년 7월 10일-16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후 질문지를 수정하여 본조사는 7월 22일 부터 8월 5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총 160쌍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150쌍이 회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143쌍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시간의 시간대별 분포를 보기 위해 빈도분포, 백분률, 평균을 사용하였고, 부부의 생활시간량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Ⅳ. 조사결과의 분석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먼저 본조사대상자의 직장별 분포는 은행, 농협,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38명 (26.6%), 동사무소, 구청, 도청, 우체국 등의 공무원으로 46명(32.2%), 대학교, 병원, 전화국 등의 공공기관에 59명(41.3%)이 종사하고 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조사대상자인 사무직기혼여성의 평균연령은 32.4세이고 남편은 35세로 전체 대상자의 60%이상이 30대이다. 이는 사무직 여성의 전체적인 연령 분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기혼의 경우라도 연령이 낮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는 없었으며, 부인은 절반가량인 49.6%가 고졸이고 50.4%가 전문대졸 이상이었으며, 남편은 64.3%가 대졸 이상이었다. 1994년 전체 사무직 여성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 5.4%, 고졸 78.6%, 대졸 16.0%(한국여성개발원, 1995)인 것과 비교하면, 사무직에서 미혼보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더 높은 사무직 여성이 결혼 후에도 직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편의 직업은 같은 사무직이 5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판매서비스직, 전문행정직, 생산·노무직 순이었으며 무직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4.9%가 있었다. 부인의 월평균 소득은 119.6만원이었으며, 남편은 167.5만원으로 가계소득에서 부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41.7%로 절반수준을 조금 밑돌고 있었다.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평균 결혼년수는 5.5년이었고 부인의 근무년수는 평균 9.4년으로, 결혼년수와 비교할 때 사무직에 입직 후 4년정도 근무 후에 결혼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들의 취업목적은 생계유지나 집마련·노후대책, 자녀의 교육비 마련과 같은 가계의 경제적인 이유가 72.5%이고, 적성을 살리기 위해 또는 경제적 독립이나 그냥 좋아서 하는 개인적 이유가 21.1%,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사회적 경험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6.3%였다.

본 조사대상인 사무직 기혼여성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을 전체 사무직 여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연령이나 교육수준, 월소득이 높고 근무년수 또한 길다.[1] 사무직은 일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전일제 취업이 대부분이므로, 자녀양육이 커다란 문제이다. 이를 위해 가사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3)

변 수	항 목	빈 도*(%)	변 수	항 목	빈 도*(%)
부인연령	~29세	40 (28.2)	남편연령	~29세	12 (8.5)
	30~34세	59 (41.5)		30~34세	55 (38.7)
	35~39세	34 (23.9)		35~39세	52 (36.4)
	40세 이상	9 (6.3)		40세 이상	23 (16.2)
	평균	32.4세		평균	30.5세
부인교육수준	고 졸	70 (49.6)	남편교육수준	고 졸	26 (18.6)
	전문대졸	30 (21.3)		전문대졸	24 (17.1)
	대 졸	36 (25.5)		대 졸	78 (55.7)
	대학원졸	5 (3.5)		대학원졸	12 (18.6)
결혼년수	~ 1년	25 (19.6)	남편직업	전문·행정직	21 (14.8)
	1~ 5년	51 (35.9)		사 무 직	78 (54.9)
	5~10년	38 (26.8)		판매·서비스직	27 (19.1)
	10년 이상	28 (19.7)		생산·노무직	9 (6.3)
	평균	5.5년		무 직	7 (4.9)
부인소득	~100만원	62 (45.3)	남편소득	~100만원	21 (15.6)
	101~150만원	59 (43.1)		101~150만원	61 (45.2)
	151~200만원	16 (11.7)		151~200만원	33 (24.4)
	201만원 이상	0 (0)		201만원 이상	20 (14.8)
	평균	119.6만원		평균	167.5만원
부인의 근무년수	- 5년	37 (26.2)	부인의 취업목적		
	6 - 10년	48 (34.0)		경제적이유	103 (72.5)
	11 - 15년	38 (27.0)		개인적이유	30 (21.1)
	15년 이상	18 (12.8)		사회적이유	9 (6.3)
	평균	9.4년			
가사보조자 유 무	있 다	72 (50.7)	가사보조자	시어머니	36 (50.7)
	없 다	70 (49.3)		친정어머니	26 (36.6)
				파 출 부	2 (2.8)
				친척·기타	7 (9.9)

* 변수별 무응답의 처리로 빈도의 합계에 차이가 있음.

1) 1994년 전체 사무직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79.3만원이고, 평균 근속년수는 3.3년이었다(노동부, 1995).

비율이 50.7%로 매우 높았다. 가사보조자는 주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들 보조자가 하는 일은 주로 자녀양육이라고 응답했다. 즉, 응답자의 60%인 86명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81.3%가 할머니 등의 가족이고, 파출부나 가정부는 4.5%, 놀이방이나 선교원 등은 9.8%, 기타 4.5%였다. 연령이나 결혼연수로 보아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속하는 이들은 자녀양육을 대부분 할머니 등의 가족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직장탁아소는 없었고 공공기관에 의한 양육이나, 파출부 등 타인을 고용하는 비율도 매우 낮았다.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이의 혜택을 보지는 못하고 있었다.

결국 사무직 기혼여성들은 결혼퇴직제의 폐지로 어렵게 직장생활을 계속하다가도 자녀양육을 개별 가족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더이상 직장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직장여성의 65%가량이 자녀문제로 사직을 고려했다는 응답(한국여성민우회, 199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녀양육이 사무직 기혼여성의 취업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생활시간의 비교

1) 시간량 비교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부부의 평일과 휴일의 생활시간을 보면 〈표 2〉와 같다.

(1) 생리적시간

생리적시간은 생활필수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부부간에 차이가 없이 비슷했다. 평일은 남편 8시간 56분, 부인 8시간 53분이며, 휴일은 평일보다 3시간 정도가 늘어난 11시간 56분과 11시간 43분이었다. 그런데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평일 생리적인 시간은, 20세 이상 성인의 평일 생리적 시간이 10시간 42분(한국방송공사, 1991)으로 나타난 것이나, 서울시 취업주부 부부의 생리적 시간이 약 9시간 50분(이기영 외, 1994)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 1-2시간이나 짧은 것이다. 이런 차이의 일부는 본 조사에서 평일 직장에서의 식사 및 휴식시간이 근무에 포함된 것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감안하여도 생리적 시간이 매우 짧다.

한편 휴일에 증가한 생리적시간은 주로 수면시간의 증가로 평일에 비해 수면시간이 1시간 40분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평소의 짧은 수면을 휴일에 보충하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2) 노동시간

① 수입노동시간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은 근무와 식사를 포함하여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9시간 17분과 통근에 보내는 시간 1시간 15분을 합하여 10시간 33분이며, 남편은 부인보다 40분정도가 더 긴 11시간 17분을 수입노동과 관련하여 보내고 있었다. 사무직 여성의 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생산직이나 판매·서비스직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2], 본 조사대상자인 사무직 기혼여성들은 대부분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수입노동을 위해 가정을 떠나 있는 시간은 하루의 44%에 해당하는 긴 시간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차이를 보면 남편이 부인에 비해 긴 시간을 근무하고 있었다. 부인은 휴일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남편은 24분의 근무가 있었다. 이들의 휴무는 부인들의 70%정도가 토요일 반일과 일요일을 쉰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나, 남편들은 43%가 1주일에 1일 반을 쉬고, 25%는 1주일에 1일만 쉰다고 응답하여 휴일에 차이가 있었다.

② 가사노동시간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 40분이며 남편은 35분을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사무직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2) 노동부 노동통계연감(1995)에 의하면, 1994년 직종별 월근로시간수는 전문직 여성 194.6시간, 사무직 여성 198.1시간, 판매·서비스직 여성 211.4시간, 농업직 여성 198.7시간, 단순노무직 여성 214.0시간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 비해 매우 짧은 것이다. 그러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는 비슷한 수준이며(조희금, 1996), 이들의 긴 수입노동시간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가사노동시간도 매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전체노동시간이 13시간 13분으로 하루의

〈표 2〉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평일과 휴일의 생활시간

생활행동의 분류	평 일			휴 일		
	부 인	남 편	T값[a]	부 인	남 편	T값[a]
수 면	7:22	7:27	-1.30	9:13	9:07	.64
식 사	46	50	-1.33	1:26	1:41	-3.31***
신변잡일	37	32	1.72	26	26	- .09
의 료	00	00	0	00	00	0
휴 식	08	07	.18	38	42	- .47
생리적시간 계	8:53	8:56	- .82	11:43	11:56	-1.00
근 무	9:17	10:04	-4.82***	00	24	-2.50***
기타 일	01	02	- .65	01	02	- .93
통근(직무관련)	1:15	1:11	1.05	00	01	-1.35
수입노동시간 소계	10:33	11:17	-4.30***	01	27	-2.71**
조 리	1:00	03	16.18***	1:26	08	15.93***
설 거 지	21	01	12.05***	33	02	10.27***
청소 · 주생활관리	16	04	4.22***	42	19	4.65***
세탁 · 의생활관리	15	02	7.46***	48	03	9.41***
자녀돌보기	39	20	3.88***	1:30	1:05	2.02*
부모 · 친척 관련 일	03	04	-1.41	54	58	- .33
시장보기, 관공서	06	01	3.31***	14	03	4.00***
가사노동시간 소계	2:40	35	15.83***	6:07	2:38	12.07***
노동시간 계	13:13	11:52	8.49***	6:08	3:03	10.17***
TV · 라디오	49	1:11	-4.22***	2:30	3:25	-4.04***
신문 · 잡지 · 독서	16	29	-3.08**	21	45	-3.71***
취미 · 오락활동	03	05	- .59	24	47	-2.00*
강습 · 수강 · 학습	06	15	-1.76	16	24	- .65
운 동	00	12	-3.95***	22	44	-2.51*
가족단란	28	32	-1.00	1:07	1:24	-1.74
모임 · 교제	00	18	-3.80***	25	46	-1.97
사회활동	00	01	-1.39	04	03	.56
종교활동	00	01	-1.07	23	22	.26
여가시간 계	1:42	3:04	-8.85***	5:53	8:40	-8.28***
이동(통근제외)	09	08	.52	13	14	.03
기 타	03	00	2.96**	03	05	- .90

a: paired t-test의 결과임. * P〈.05 ** P〈.01 *** P〈.001

55%를 노동에 할애하는 것이다. 산업화 초기 근로자들이 1일 8시간노동을 주장하여, 하루의 8시간은 노동을 위해, 또 다른 8시간은 휴식을 위해, 나머지 8시간은 좋아하는 일을 위하여라는 노래가 있었다(伊藤, 1994)는 것을 생각할 때 사무직 기혼여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장시간노동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가정생활주기상으로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긴 자녀양육기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가사노동시간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우선은 긴 근무시간 때문이지만 자녀양육을 위한 가사보조자가 있는 것도 한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사노동시간에서는 조리 등 식생활관리시간 다음으로 자녀양육시간이 많아서 가정생활주기를 반영하고 있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35분에 불과하여,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한 전체 노동시간은 부인보다 1시간 20분이 적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Adams(1980)가 분류한 신전통주의 역할구분을 나타내고 있어서(이연주, 1984) 부인은 전일제로 취업하여 남편과 차이가 없는 수입노동시간을 가지나,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이기영 외, 1994)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부인의 취업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30분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자녀돌보기 시간이 20분을 차지하여 남편의 가사 중 자녀돌보기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을 알수있다.

휴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보다 3시간이상 증가한 6시간 7분이고, 남편의 가사노동도 2시간이상 증가하였다.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가운데 휴일에 특히 증가한 것은 자녀돌보기와 부모나 친척관련일이었고, 그 다음은 청소 및 세탁관련 시간이 증가하였다. 남편의 경우도 휴일 가사노동시간의 절반가량이 자녀돌보기였으며, 다음이 부모나 친척관련일로 그 두가지를 제외하면 청소를 19분 하고 나머지는 휴일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결국 부부모두 휴일에는 평일에 부족했던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지며, 다음은 부모나 친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인은 그 외에도 평일에 못다한 청소·빨래·설거지 등을 하고 있지만, 남편은 이러한 가사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가시간

평일 부인의 여가시간은 매우 부족할 뿐만아니라 내용으로도 TV시청과 라디오 청취에 치우친 여가생활을 하고 있다. 즉 TV·라디오에 49분을 소비하여 짧은 여가시간의 50%를 소비하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28분과 신문 등의 독서 12분을 합하여 1시간 42분에 불과한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다. 남편의 평일 여가시간은 3시간 4분으로, TV·라디오의 1시간 11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32분외에, 부인은 전혀 하지 못하는 운동에 12분, 모임·교제에 18분을 보내고, 신문 등의 독서에 23분, 강습·수강에 15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부인에 비해 다양한 여가생활을 하고 있었다.

한편, 사무직 여성의 여가에 대한 조사에서(지윤정, 1993), 이들의 여가문화는 혼인상태에 따라 매우 차이가 커서, 기혼의 경우는 여가를 생각할 수 없이 퇴근후 쏜살같이 집으로 가서 잠자기 전까지 가사노동을 하고, 잠시 TV를 보거나 가족과 담소를 하는 것이 전부인데 반하여, 미혼의 사무직 여성들은 퇴근 후에 여가생활을 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사무직 기혼여성의 여가생활은 매우 제한적이다.

휴일에는 부부 모두의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내용도 평일에 비해 다양해진다. 즉, 부부 모두 TV·라디오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증가한다. 부인의 경우는 평일에 전혀 할 수 없는 모임·교제나, 종교활동, 운동 등의 비중이 증가하며, 남편의 경우도 취미·오락활동이나 모임·교제, 운동 등의 순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평일뿐만아니라 휴일에도 사회활동의 참여는 거의 없었다

2) 시간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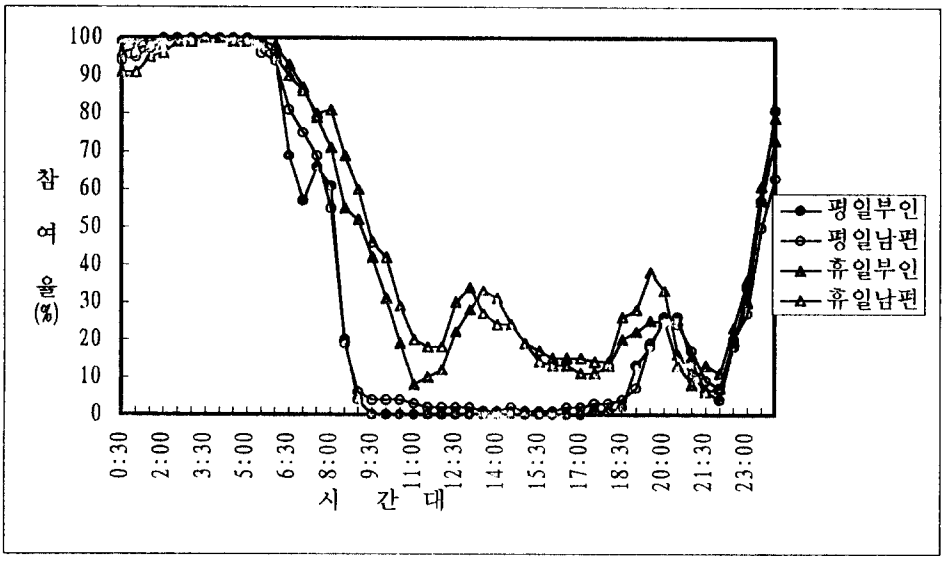
부부의 생활시간을 시간대별 분포로 비교하기 위하여 각 시간대별로 각각의 생활행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① 생리적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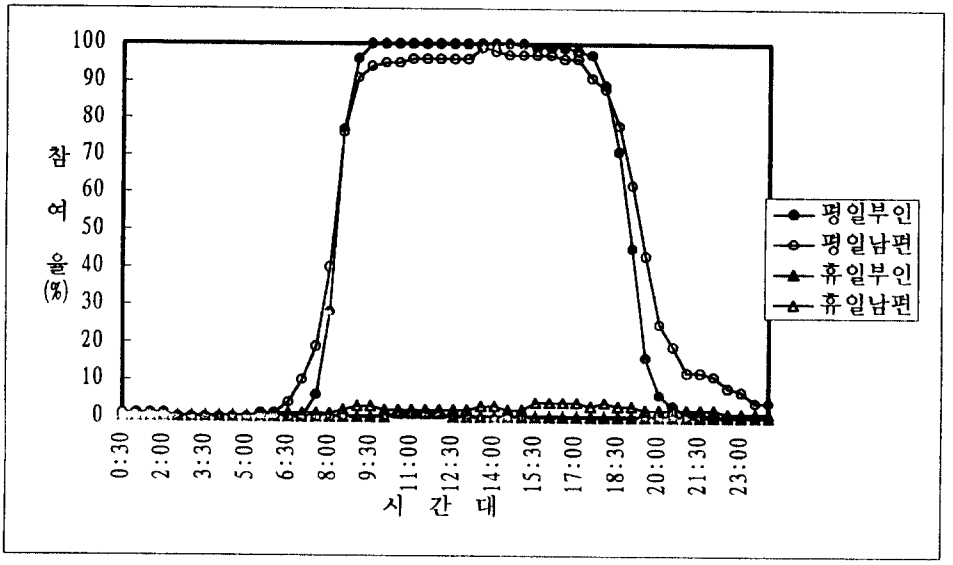
〈그림 1〉에서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평일과 휴일의 생리적 시간을 시간대별 분포에서 보면, 평일 부인의 기상시간은 남편보다 일러서 기상 후 아침식

사시간이 뚜렷이 나타나지만, 남편은 수면과 아침식사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인은 6시30분에 기상하여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7시 30분경에 식사와 출근준비를 하는데 비하여, 남편은 7시에 기상하여 곧바로 아침식사를 한다. 저녁에는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저녁식사를 하고, 부인은 11시경에 남편은 12시경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보인다. 휴일은 전체적으로 생리적시간이 증가해서 기상시간이 늦어지고,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도 하루종일 생리적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부부인 이들의 생리적시간은 시간량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시간대별로는 차이를 보임



〈그림 1〉 생리적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그림 2〉 수입노동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을 알 수 있다. 즉, 평일 부인은 남편보다 기상이 빨라서 아침준비를 하는 반면, 저녁에는 남편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므로서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수입노동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그림 2〉에서 평일 부부의 수입노동시간의 시간대별 분포를 보면, 남편이 부인보다 일찍 시작하여 늦게까지 직장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부인은 평일 8시 10분 부터 출근이 이루어져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은 6시 40분까지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동질적인 분포를 그리는 것이 남편과는 다른 점이다. 부인들과 달리 남편들은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저녁 9시이후에도 10%이상이 직장에 관계되어 있다. 휴일의 수입노동시간은 거의 없다.

③ 가사노동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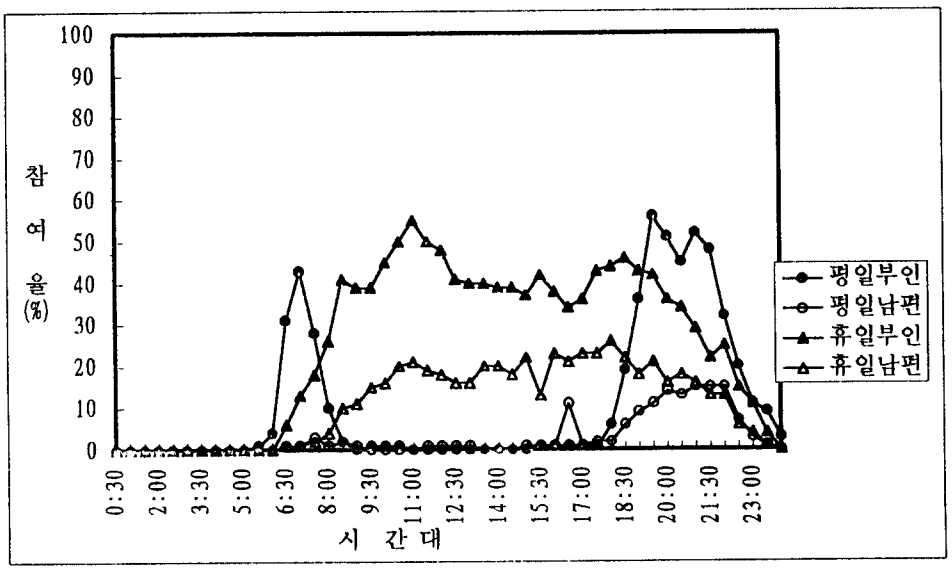
가사노동시간의 시간대별 분포를 〈그림 3〉에서 보면, 평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아침 6시 30분에서 8시까지와 저녁 6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편은 오전의 가사노동참여는 전혀 없으며, 오후에는 저녁 식사시간을 전후에서 20%이내가 가사노동, 주로 자녀돌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휴일에 부인은 하루종일 40-50%의 비율이 가사노동을 하고 있으며, 남편 가운데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20%이내이다.

④ 여가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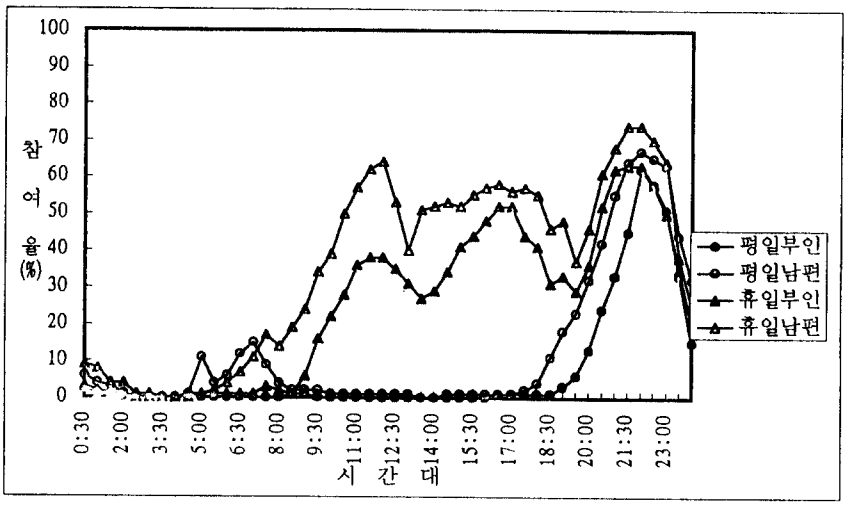
평일 부인의 여가시간은 저녁식사 후만 가능하나, 남편은 출근전인 아침 5시에서 8시 30분사이와, 저녁시간에 여가활동 참여가 나타나고 참여비율도 훨씬 높아서 부부간에 차이가 있다. 휴일에는 평일보다 전반적인 참여가 늘어나서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시간에 여가활동을 하며, 남편의 여가활동 참여율이 부인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즉, 남편과 부인의 여가시간 차이는 시간대별 차이에서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3)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맞벌이 부부이므로 이들의 생활시간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입노동시간이다. 부부의 수입노동시간은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생활시간구조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무직 기혼여성부부가 자신 및 배우자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의 어떤 측면을 시간적으로 제약한다고 생각하는



〈그림 3〉 가사노동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그림 4〉 여가간의 시간대별 분포

〈표 3〉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장시간노동에 대한 인식

N*(%)

	항 목	부 인		남 편	
		자신의	배우자의	자신의	배우자의
수입노동시간	매우길다	13(9.1)	20(14.0)	19(13.3)	14(9.9)
	길다	67(46.9)	58(40.6)	61(42.7)	50(35.2)
	적당하다	59(41.3)	64(44.8)	57(39.9)	77(54.2)
	짧다	3(2.1)	1(0.7)	1(0.7)	1(0.7)
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	85(59.4)	62(43.4)	73(51.8)	94(66.2)
	제약안한다	58(40.6)	81(56.6)	68(48.2)	48(33.8)
직장생활로 제약받는 개인 및 가정생활시간	수면시간	18(9.8)	16(19.3)	21(14.5)	5(5.3)
	가사노동시간	28(15.2)	9(10.8)	2(1.4)	9(9.5)
	자녀돌보는시간	58(31.5)	18(21.7)	14(10.7)	34(35.8)
	취미 · 오락시간	41(22.3)	8(9.6)	32(22.1)	16(16.8)
	가족단란시간	16(8.7)	16(19.3)	44(30.3)	20(21.1)
	배우자와의 시간	11(6.0)	12(14.5)	21(14.5)	8(8.4)
	교제시간	12(6.5)	4(4.8)	11(7.6)	3(3.2)

* 무응답의 처리로 응답자수에 차이가 있음.

지 부부의 지각정도를 살펴보았다.

〈표 3〉에서 보면, 부인은 자신의 수입노동시간이 길거나 매우 길다고 느끼는 사람이 56.0%이며, 자신의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을 시간적으로 제약한다고 지각하는 사람은 59.4%였다. 그러나 남편의 노동시간이 길다고 느끼는 사람은 54.6%이고, 남편의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43.4%로 자신의 직장생활보다 남편의 직장생활에 대해 더 너그러웠다. 또 자신의 직장생활로 가장 제약을 느끼는 가정생활은 31.5%가 자녀돌보기, 22.3%가 자신의 취미 · 오락시간, 그리고 15.2%가 가사노동시간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남편의 직장생활로 제약을 받는 부

분은 자녀돌보기, 수면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응답하였다.

남편은 54.0%가 자신의 노동시간이 길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51.8%이다. 또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에 대하여는 45.1%만이 길다고 생각하나, 66.2%가 가정생활을 제약한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자신의 직장생활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부인의 직장생활에 대해서는 엄격함을 나타내었다. 자신의 직장생활로 제약을 주는 가정생활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취미·오락시간, 수면시간 등이었고, 부인의 직장생활로 제약을 받는 가정생활로는 자녀돌보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자신의 취미·오락시간을 들고 있어서 부인과는 달리 매우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농업직이나 판매·서비스직은 전통적으로 기혼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종이며, 생산직은 산업화 초기에는 미혼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70년대 후반과 80년대를 거치면서 기혼여성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런데 사무직은 아직은 미혼여성의 비율이 높으나, 계속되는 산업의 서비스화와 정보통신화는 여성인력을 요구하며 기혼여성의 취업에 장애가 되는 제도 및 분위기가 감소하고, 여성의 학력 및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기혼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취업기혼여성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고, 자녀가 어린 경우는 더욱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직은 자녀양육기가 대부분인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 부부의 생활실태를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들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는 시간량적인 측면과 시간대별 분포를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또 부부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 모두는 수입노동시간이 길어서 전체적인 생활시간 구조가 노동시간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부인은 가사노동을 담당해야 하므로 평일 뿐만아니라 휴일에도 상당량의 노동을 하고 있다. 한편, 평일에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시간이 짧은 것은 가족차원의 가사보조자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로 보면,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는 신전통주의적인 역할분담을 하고 있어서, 부인이 전일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매우 적다. 이는 특히 평일 부인의 여가생활을 심하게 제약하고 있다.

셋째, 이상의 내용은 각자의 직장노동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부인은 스스로 자신의 직장생활을 더 제약적으로 보고 있으며 남편도 부인의 직장생활에 대해 더 엄격했다. 즉, 사무직 기혼여성들에게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것이 시간적·심리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특히 남편들의 긴 노동시간은 가사노동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통근시간을 포함한 이들의 수입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입노동시간의 단축은 궁극적으로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남성들이 가정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모임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좋은 아버지를 위한 모임' 등은 좋은 예라고 하겠다.

둘째, 사무직 기혼여성들의 취업동기가 대부분 가정의 경제적인 이유이므로 부부는 동등한 입장에서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에 임할 필요가 있다. 부부가 모두 부인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길 때, 맞벌이 가정으로써 성공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취업한 기혼여성 가정의 가사노동 특히 자녀양육이 개별가정의 책임으로 남아 있는 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풍부한 기혼여성 노동력의 활용을 위해서도 사

회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직장탁아소 및 지역탁아소 운영의 활성화, 자녀의 방과후 지도, 아픈가족을 돌볼 수 있는 가족간호휴가제 등의 시설 및 제도가 정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결론 및 제언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전체 사무직 기혼여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한점 때문에 일반화시키는데 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본 연구가 대체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무직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사정이 더 열악할 것으로 짐작되는 사기업에 종사하는 사무직 기혼여성의 경우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김태홍・문유경(1995). 해방이후 사무직 여성의 지위변화와 전망. 한국여성개발원. 광복이후 여성의 지위변화와 전망.

2) 유희정(1991). 계급의 정치와 성의 정치: 사무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사회계층-이론과 실제. 서울: 다산출판사.

3) 심광숙(1990). 하위사무직 여성의 고용형태 변화에 관한 사례연구. 연세대석사학 위논문.

4)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5) 이방윤(1989). 하위사무직 여성노동자의 상태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대석사학 위논문.

6) 이연주(1984).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지 22(4), 131-145.

7) 이현아・이기영(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45-160.

8) 조희금(1996). 생산직 기혼여성의 노동부담 및 건강상태와 대처방안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 지윤정(1993), 퇴근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계간 사무직여성 1993년 여름호.

10) 한국여성민우회(1989). 사무직 여성의 현실과 운동. 서울: 도서출판 석탑.

11) 한국여성민우회(1994), 계간 사무직 여성, 1994 겨울호.

12)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90-105.

13) 통계청(1992). 한국표준직업분류.

14) 통계청(1994). 1963-1993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30년-.

15) 통계청(1995). 한국의 사회지표.

16) 한국여성개발원(1995). 1995여성통계연보.

17) Shelton, Beth Anne(1992). *Women, Men and Time: Gender Differences in Paidwork, Housework and Leisure*. Westport: Greenwood Press.

18) Szalai, A.(1966). Multinational Comparative Time Budget Research Project. *American Behavioral Scieneist*. 矢野眞和(1996). 生活時間の社會學. 東京: 東京大出版會에서 재인용.

19) 森ます美(1989). 長時間勞動と家庭生活. 伊藤セツ・天野寬子著(1989). 生活時間と生活樣式. 光生館.

20) 矢野眞和(1996) 生活時間の社會學. 東京: 東京大出版會.

21) 伊藤セツ(1994). 女性勞動者の勞動時間と生活時間. 勞動總研・勞動時間問題研究會編. 日本の勞動時間. 東京: 學習の友社. 125-149.